



“이곳이 불법숙소에요?... 몰랐어요”

행정-자치경찰-관광협회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서부지역 타운하우스 급습... 투숙객들 어리둥절 “온라인사이트 통해 영업... 여행객 몰리며 기승”

“불법 숙박시설로 의심됨에 따라 점검 나왔는데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불법 숙박시설이 아니요...”

2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불법 숙박업 점검에 나선 단속반과 투숙객이 주고 받은 대화이다. 투숙객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타운하우스가 미등록된 숙박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는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숙박업 운영이 의심되는 타운하우스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당시 불법 숙박시설로 의심되는 타운하우스에서 머물고 있던 투숙객에게 해당 시설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곳임을 설명하자 투숙객은 어리둥절하며 예약을 통해 해당 숙소를 잡고 머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건과 침구류 등을 제공

받았느냐는 질문에 투숙객은 “그렇다”고 답했다.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투숙객에게 비누, 침구류 등을 갖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 바로 옆 타운하우스에도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는데 3주간 여행을 왔다고 하는 등 상황은 비슷했다.

단속반은 “(해당 타운하우스와 관련) 조사를 더 해야겠지만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수처리 용량 기준에도 미달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타운하우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에서 집주인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다고 해서 폐업 신고가 안된 줄 알고 숙박업을 해왔다”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주로



27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가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불법 숙박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주시 등에 따르면 도내 불법 숙박업소 적발 건수는 2018년 101건, 2019년 396건으로 1년 사이 3배 넘게 급증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542건, 올해도 지난 8월까지 309곳이 적발되는 등 불법 숙박업 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불법 숙박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피해를 주

고 있는 데다, 안전·위생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숙박업소인 경우 화재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업소는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투숙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태원기자

■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 3차 공판 범행 이유로 ‘간암’ 핑계

김시남 진술엔 의구심 제기

중학생 피살사건을 처음 계획한 백광석(48)이 간암에 걸린 것으로 착각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46)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이를 전(25일)에야 피고인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서 미뤄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씨와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백씨에 대한 신문에 나선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 살해 후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그 병에 죽을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고 어머니가 말한 다. 그 병이 뭐냐”고 질문하자 백씨

는 “간암”이라고 답했다.

이어 장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진단은 받았나”고 되물었고, 백씨는 “사건 한달 전부터 피를 토하고, 살도 많이 빠져 간암인줄 알았다. (그래서) 자포자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병원에 가봤자 치료는 늦은 것 같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씨는 경찰 체포 이후 병원 검사를 받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김씨의 신문에서는 진술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김씨는 백씨가 두 손으로 허리를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 한 쪽 부분을 놓쳤는데, 당시 자신이 넘어지면서 우연히 해당 부분을 밟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상황이다.

신문을 모두 마친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30분에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7일 오전 3시38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로 돈사 3개동이 전소되면서 돼지 300여마리가 폐사했다. 사진=서부소방서 제공

양돈장 화재... 돼지 335마리 폐사

새벽에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300여마리가 폐사했다.

27일 오전 3시38분쯤 제주시 애월읍 소재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만에 진압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돈장 10개동 가운데 3개동이 소

실되면서 안에 있던 돼지 335마리가 폐사했다. 소방서에서 추산한 피해는 약 1억5400만원에 달한다.

소방당국은 분만사에 있던 인큐베이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집에 카드 있으니 함께 가면...”

주점 여사장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4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범죄까지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10분쯤 도내 한 단란주점에서 5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도 돈을 내지 않는

등 올해 3월 1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470여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2월 20일 새벽에도 한 주점에서 술값 80만원을 낼 수 없게 되자 여성 업주 B씨에게 “집에 가면 현금을 뵈울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유인한 뒤 집으로 따라온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올해 2월 휴친 체크카드로 771만여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송은범기자

방화 혐의 30대 긴급체포

불을 질러 자신의 집을 모두 태운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3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11시48분쯤 제주시 조천읍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출동 당시 A씨는 “매트리스에 옷가지를 올린 뒤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아내 살해 70대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7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77)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살인이며, 앞선 1심에서는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둔기로 부인(75)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은범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페르카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중축/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옥상방수/페인트공사, 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 도배/장판/몰딩 시공,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메터 녹물경고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수확의 동반자 "과일망태"

더 이상 허리속여 수확하지 마세요!

- 작물 수확하는 수확용 기방 '과일망태'
- 허리 피로가 크게 감소, 작업능률 대폭 상승
- 두툼한 등·어깨 패드로 오래 작업해도 편안함
- 사과, 감, 귤, 대추, 키위 등 과일 / 옥수수, 피망, 파프리카, 가지 등 갖가지 채소 수확에도 편리함

과일망태 착용 전후면

▲ 과일망태 착용 후면 ▲ 과일망태

처진 가지 들어 올릴때, 안파고 드는 "안파고"

안파고 드는 유인줄 "안파고"

- 사과, 복숭아, 자두 등 다양한 나무 견인 작업에 탁월한 효과.
- 사다리에서도 편리하고 오래 작업해도 손이 아프지 않음.
- 초간편 원터치&위문 길이 조절.
- 기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 안파고 110호 (약은 고리 x 1m)
- 안파고 115호 (약은 고리 x 1.5m)
- 안파고 210호 (큰 고리 x 1m)
- 안파고 215호 (큰 고리 x 1.5m)

까지·까마귀·새 쫓을 때!~ 다인독수리연

4m 폴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폴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풀, 비스듬도 다르다!

과수 유인줄, 유인줄, 이물질 기타 영농장재

상당 및 문의

DA IN 다인산업 054-652-3725

경북 예천군 보현면 서안길 11-28(산내면 609)

홈페이지 www.dainfine.com